

# 2010 아시아 양봉대회 개최지 부산 벅스코 방문

- 양봉협, 아시아 양봉대회 준비에 박차
- 1층 행사장 양봉산물전시 상시운영, 홍보효과 기대
-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의 현장 되도록 만전 기해

한국양봉협회는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를 앞두고,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.

양봉협회 배경수 회장, 시·도 지회장 및 사무장, 최규칠 사무총장은 지난 18,19일 2010아시아 양봉대회의 개최지인 부산 벅스코 현장을 방문하였다.

부산 벅스코에 도착한 배경수 회장을 비롯한 지회장들은 제일 먼저 회의실로 향하여, 이오컨벅스가 준비한 대회개요 및 사업수행부분 브리핑을 들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.

행사기간 동안 1층은 양봉산물전시가 상시운영 되어 우리나라 양봉기자재 및 양봉산물을 외국인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2층은 분과회의를 비롯한 학술발표 현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, 3층은 기조연설 및 특별강연이 열려 각 층을 고루 분배한 장소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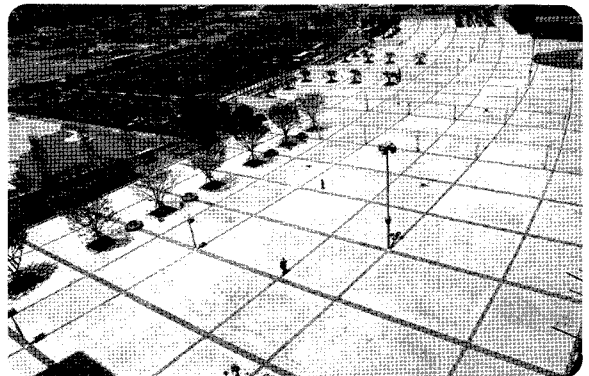
협회 배경수 회장은 “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며 임원 및 지회장들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신신당부 하였다.

또한 “우리 양봉인들은 이번 대회가 축산업 최초로 유치한 세계대회인 만큼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적인 길로 가는 첫 걸음이다”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.

현재 아시아 양봉대회 일시는 11월 4일~ 7일, 3박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, 양봉관련업계 및 기관, 협회 등 외국인 1,000명, 내국인 4,000여명이 정도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**양봉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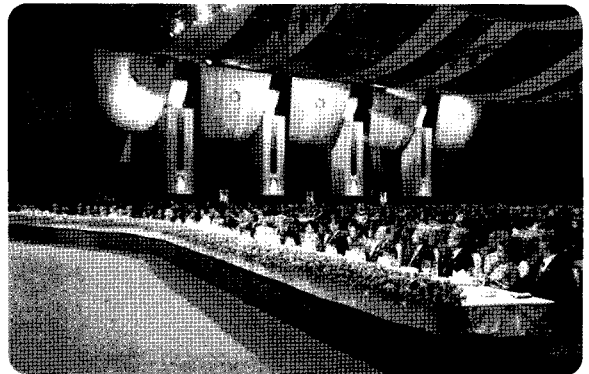
누리마루 APEC 하우스



벅스코 야외전시장 전경



부산 벅스코(BEXCO) 전경



벅스코 실내 전시장 전경



최첨단 다기능 컨벤션홀



현장지원센터